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PROSECUTION SERVICE	보도자료 2020. 4. 14.(화)
	자료문의 : 기획검사실 전화번호 : 02-530-3147 주책임자 : 서울고등검찰청 기획검사 김기룡

제 목 『항고업무편람』 개정판 발간

- 서울고등검찰청(검사장 김영대)은 항고제도를 통한 국민 권리구제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항고사건의 통일적 처리를 위한 지침서로서, 『항고업무편람』 개정판을 발간하여 전국청에 배부함
- 전국 고검 항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2,395건에 달하였고, 그 중 3,198건(약 10%)이 재기수사명령되어 결국 1,484건(약 46%)이 기소됨으로써, 항고제도의 국민 권리구제 기능이 더욱 증대함
- 서울고검은, 2006. 『항고업무편람』이 발간된 후 13년간 제·개정된 법령·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신설·항고심사회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한 실무지침서로서 『항고업무편람』 개정판을 발간한 바, 항고업무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함

I 배경

- 항고제도는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고소인, 고발인을 위해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국민 권리 구제의 중대한 기능을 수행함

- 국민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항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.에는 18,545건(항고율 6.82%)이었던 전국 고검의 항고사건이 2019.에는 32,395건(항고율 12.6%)에 달하였고, 그 중 3,198건이 재기수사명령(약 10%) 되어 결국 1,484건(약 46%)이 기소됨으로써 항고제도의 국민 권리구제 기능이 더욱 증대함
- 한편, 2006. 『항고업무편람』이 발간된 후 13년간 개정되지 아니하여, 2007.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제·개정, 판례 변경, 검찰시민위원회 신설·항고심사회 폐지 등 제도 변화가 반영되지 아니하고, 통일된 지침 미비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음
- 이에, 서울고검은, 2015. ‘대검·서울고검 항고업무 TF’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『항고업무편람』 개정판 발간을 재추진하여, 2020. 4. 발간·배부함

II 발간·배부 경과

- 2019. 8. 서울고검 내 ‘항고업무편람 편찬 T/F’ 구성
- 2019. 8.~2020. 4. 우수기재례 선정, 내용 집필 교정·인쇄작업 후 발간완료
- 2020. 4. 『항고업무편람』 개정판(400쪽 분량, 800부) 전국 고검, 법무연수원 등 관계기관 배부

III 주요 내용

- 항고제도의 이론적 고찰, 항고업무 전반의 절차 및 유의사항 설명
- 항고업무 관련 제·개정된 법령·지침, 변경된 제도·판례 반영

- ‘조희팔’ 사건, ‘양진호 위디스크 사장’ 사건의 재기수사명령 등 주요사건의 우수기재례, 재기수사명령 사유별 기재례, 항고 기각시 이유 기재례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 되도록 작성

IV 발간·배부의 의의

- 항고업무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발간된 『항고업무편람』 개정판이 항고사건 처리에 유용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, 향후 지속적인 보완·개정을 통해 보다 알찬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☑